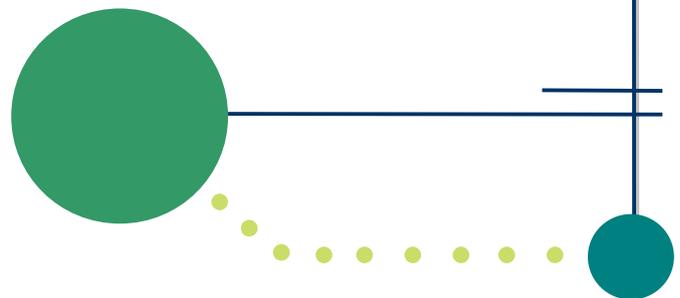




중남미 게임 시장 동향

- 멕시코 이통사 Telcel, 모바일게임 전용 단말 출시
- 2009년 남미 모바일게임 시장, 3G 보급률 증가로 낙관적...Nokia
- **M&A** 칠레 게임업체 Wanako Games, 캐나다 A2M에서 인수



멕시코 이통사 Telcel, 모바일게임 전용 단말 출시

Zeemote, Telcel과 제휴 통해 멕시코 진출

- ◆ 모바일게임용 무선 컨트롤러 제작업체인 Zeemote가 지난 2008년 초 네덜란드에 진출한 데 이어, 멕시코 최대 이동통신 사업자인 Telcel과 제휴, Sony Ericsson의 W760i 단말과 함께 해당 컨트롤러를 번들 출시
 - Telcel은 Fishlab의 'Heli Strike 3D' 게임을 기본 내장한 2GB의 메모리카드도 함께 제공해 '충분한 게임 저장 공간'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할 계획
- ◆ Sony Ericsson Mexico의 Jose Maria Bescos 마케팅 담당자는 "W760i와 Zeemote JS1 컨트롤러의 조합으로 2.2인치 액정화면을 통한 3D 모바일게임의 조작성과 재미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들에게 현지 시장 최고의 모바일게임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
 - Telcel의 Luis Ramón 부사장은 "Zeemote JS1 무선 컨트롤러를 멕시코 시장에 최초로 출시함으로써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색다른 방식의 모바일게임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힘

Zeemote 서비스 현황

- ◆ Zeemote 컨트롤러는 현재 독일에 Nokia 단말 7종과의 번들로 제공되고 있으며, 스페인에서는 이동통신업체인 Movistar를 통해 Sony Ericsson의 K530 단말과, 네덜란드에서는 W760i와 번들로 제공되고 있음
 - JS1용 게임은 현재 액션, 어드벤처 등 8개 장르의 총 51개 게임이 제공되고 있으며, 개발사로는 Nokia(10개), Gameloft(9개), EA(7개), Fish Labs(5개), Digital Chocolate(4개), Glu mobile(4개), Bandai Namco(2개), Pixel(2개) 등 16개 모바일게임 개발사가 참여

구분	단말제조사	단말기 모델	서비스국가
지원 단말기	Nokia(7종)	XpressMusic, N79, N96, N95, N95 8GB, N82, N81	독일
		K530	스페인(Movistar)
	Sony Ericsson (3종)	W760i	멕시코(Telcel)
		W760i	네덜란드
예시			

[출처] Zeemote, 2009.1

2009년 남미 모바일게임 시장, 3G 보급률 증가로 낙관적...Nokia

남미 이동통신 시장, 게임 지원 휴대폰에 대한 수요 증가로 성장 전망

- ◆ Nokia는 남미 시장에 경기침체로 인한 여파가 미칠 것을 인정하면서도, 장기적인 낙관론을 제시하는 한편 구체적인 공략 계획을 밝힘
 - Nokia 남미의 Olivier Puech 부사장은 게임을 포함한 동영상,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지원하는 휴대단말에 대한 수요가 남미 휴대단말 시장을 견인, 향후 3년간 약 29%의 성장률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
- ◆ 실제로 신규 휴대단말이 미국보다 남미에 먼저 출시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이로 인해 남미는 휴대전화 보급률이 이미 상당 수준에 달한 시장과 여전히 통신소외지역으로 분류되는 시장이 혼재해 있는 상황
 - 남미 전체 이동통신 보급률이 70%에 불과한데다, 유선 인프라 보급률 또한 낮아 향후 휴대단말 시장의 성장가능성은 매우 밝음

Nokia의 남미 공략 전략

- ◆ Nokia에 따르면 남미의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2007년 3억 6,300만 명에서 2012년경 4억 6,800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
 - 시장조사업체인 Nielson과 Gfk의 조사에 따르면, 남미 최대 단말벤더인 Nokia는 2008년 3/4분기 32.2%의 시장점유율을 기록, 전년동기의 30.6%에 비해 상승했으며, Motorola는 22.3%의 시장점유율을 기록, 전년동기의 26.4%에 비해 하락
- ◆ Nokia는 노년층으로 대표되는 단순 이용자(simplicity seekers), 엔터테인먼트와 신기술을 원하는 주도형 소비자(technology leaders), PC 기능을 겸비한 휴대전화의 편의성을 추구하는 기업형 소비자(solution seekers) 등 소비자 세그먼트를 13개 정도로 세분화해 공략할 계획
 - 브라질과 함께 남미 최대 시장이자, 전세계 10대 시장에 속하는 멕시코에서는 특히 음악 기능과 디자인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춰 단말 라인업을 편성할 계획
 -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1,600만 명에 지나지 않아 여타 나라들에 비해 성장세가 느린 칠레에서는 3G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전망이어서, 빠른 웹 애플리케이션/동영상 파일/기타 관련 기능 등을 원하는 소비자 부문에 중점을 둘 방침
 - 이를 위해 Nokia는 저가형 단말을 비롯, 각종 첨단기능(카메라, 음악, 이메일/메시지, 게임, 디지털 레코더, 지도, 동영상, FM 라디오, SNS 접속 등)을 지원하는 고사양 단말에 이르는 폭넓은 라인업을 제공할 계획

칠레 게임업체 Wanako Games, 캐나다 A2M에서 인수

🌐 캐나다 게임업체 A2M, 前 Activision Blizzard 소속 개발사 인수

- ◆ 캐나다 게임업체인 Artificial Mind and Movement(A2M)이 Activision Blizzard로부터 칠레 Santiago에 위치한 남미 최대 콘솔게임 개발사인 Wanako Games를 지난 2008년 11월 인수한 것으로 알려짐
 - Wanako는 지난 2007년 2월 Vivendi Universal의 Sierra Entertainment에 인수됐다가 Activision과 Vivendi의 합병 이후 정리 대상에 포함됨
 - 2002년 설립돼 약 40여 명의 직원을 둔 Wanako Games는 ‘Arkadian Warriors’, ‘Assault Heroes’ 시리즈 등의 다운로드형 게임을 주로 개발하고 있으며, 두 게임 모두 Sierra Online이 유통을 맡아 Xbox Live Arcade(XBLA)에 출시된 바 있음
 - 현재 Wanako Games는 ‘3D Ultra Mini Golf 2’와 XBLA/PSN(PlayStation Network)용 미공개 타이틀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인수 배경 및 효과

- ◆ 차세대 콘솔게임기용 슈팅 게임 ‘Wet’을 개발하고 있는 A2M은 이번 인수를 통해 자사의 소프트웨어 라인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Wanako의 ‘TONGAS’ 게임 프레임워크/개발틀로 XBLA/PSN용 다운로드형 콘텐츠(DLC: Downloadable Content) 개발 시장에서 입지를 한층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 Wanako 역시 자사의 디지털 배급용 콘솔게임을 한층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Wanako는 칠레 Santiago 일대의 대학 및 디자인 학교와 산학협력 체제를 구축해왔으며, 인수 후에도 이를 지속할 계획

 www.a2m.com  www.wanakogames.com